



전북농협, 보훈가족 초청 호국보훈행사

전북농협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초청해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다.

전북농협은 22일 전북동부보훈지청과 협력해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 30여 명을 초청한 가운데 호국보훈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보훈가족과 관계자들은 국립임실호국원을 찾아 현충탑에 합동 참배하고 충령당을 견학하며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다. 또한 국가유공자들의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호국보훈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참배를 마친 참가자들은 임실치즈마을로 이동해 우리 쌀을 활용한 치즈파자 만들기 체험에 참여했다. 체험 프로그램은 보훈가족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오상근 기자



한전 전북, 고창군에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본부장 윤여일)이 22일 고창군청을 찾아 1,090만원 상당의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는 지난해 1,850만원 기탁에 이어 올해까지 연이어 고창군에 마음을 전해왔다.

고창군은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인재 육성, 취약계층 지원, 문화·관광 활성화 등 지역 발전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농협 고창군지부, 수박축제서 농심천심 캠페인

농협중앙회 고창군지부(지부장 이미정)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제 23회 고창북분자와 수박축제 현장에서 농업·농촌의 가치 확산을 위한 '농심천심 운동'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은 '농심은 곧 천심'이라는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농업의 소중함을 알리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제23회 고창북분자와 수박축제는 선운산도립공원 일대에서 개최되어 지역 대표 농특산물인 북분자와 수박, 풍천장어의 우수성을 알리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시 드림스타트, '드림 힐링 가족여행'

남원시 드림스타트는 지난 20일과 21일 1박 2일로 부산 일원으로 드림스타트 이동 및 가족 30명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선물하고,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 증진을 위한 뜻깊은 가족여행을 다녀왔다고 밝혔다.

여행에 참여한 이동들은 부모와 함께 부산 롯데월드를 방문해 유쾌하고 신나는 시간을 보냈으며, 국립과학관에서는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다채로운 과학 체험을 즐겼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대회 '우수'

남원시보건소, 지역 맞춤형 건강증진 취약계층 건강관리 강화 등 높은 평가

남원시가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2026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지역 보건의료계획은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추진하는 중장기 법정계획으로, 지역 특성과 주민 건강수요를 반영한 보건의료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획이다.

남원시는 지역 건강문제 분석을 기반으로 △지역 맞춤형 건강증진사업 추진 △취약계층 건강관리 강화 △지역사회 건강안전망 구축 등 다양한 보건의료 정책을 적극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주민 의견 수렴과 지역 내 보건·의료·복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고, 3차년도 시행결과 개선사항을 4차년도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주민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한 점이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한용재 보건소장은 "이번 수상은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온 보건소 직원과 지역사회 관계기관의 협력 덕분이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원시는 앞으로도 지역 보건의료계획을 기반으로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주민 누구나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건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은행, '딸에게 보내는 선물' 전달식

JB금융그룹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여성청소년들을 위해 보건위생용품을 지원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은 22일 전북은행 본점 1층 로비에서 2026 딸에게 보내는 선물 전달식을 개최하고 여성청소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체력과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복지 사각지대 여성청소년들에게 보건위생용품을 지원해 건강한 성장을 돕고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과 전북은행노동조합 여성위원회의 소속 40여명이 참여해 약 4,000만원 상당의 보건위생용품 1,500박스를 직접 포장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참가자들은 위생용품 포장과 함께 보이소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문도 동봉해 여성청소년들의 금융안전 의식 제고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준비된 물품은 향후 지자체와 협력해 도움이 필요한 여성청소년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명규 회장을 비롯해 박준원 전북은행장, 정원호 전북은행노동조합 위원장, 김태희 전북은행노동조합 여성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오상근 기자



하림, 2026 임직원 한마음 미륵산행' 성료

종합식품기업(주)하림(대표이사 정호석)은 최근 익산시 미륵산 둘레길 일대에서 정호석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2026 하림 임직원 한마음 미륵산행'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사내 세대별 가치관과 다양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건강하고 유익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주파티마신협, 취약계층 위한 열무물김치 나눔

전주파티마신협은 지난 19일 임직원과 조원원으로 구성된 홍보봉사단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선나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여름맞이 열무물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단과 임직원들은 직접 담근 9kg 상당의 열무물김치 140박스를 준비해 전북동부보훈지청과 선나머종합사회복지관의 추천을 받은 독거노인과 저소득 가정 등 지역 내 취약계층 140가구에 전달했다. /오상근 기자

남원시 공직자들, 농촌일손돕기 나서

남원시는 공직자들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찾아 농촌일손돕기에 나서며 농가 지원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밝혔다.

일손돕기는 6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관내 23개 읍·면·동과 36개 실·파·소가 함께 참여하는 농촌 일손돕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공직자 약 120명이 참여해 농가의 일손 부족 해소에 힘을 보태고 있다.

현재 남원시는 총괄 부서인 농정과를 필두로 관내 23개 읍면동과 36개 종합행정 담당부서가 참여하는 전사적인 농촌 일손돕기를 추진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대병원, 호남권 대동맥판막협착증 치료 선도

고난도 심장시술 '타비(TAVI)' 400례 달성

전북대학교병원이 대동맥판막협착증 치료의 대표적 고난도 시술인 경피적대동맥판막치환술(TAVI·타비) 400례를 달성하며 호남권 심혈관질환 치료 분야의 선도적 역할을 입증했다.

전북대병원은 최근 대동맥판막협착증으로 호흡곤란 증상을 겪던 80대 환자에게 타비 시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하며 누적 400례를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400번째 시술을 받은 환자는 시술 후 안정적으로 회복해 건강한 상태로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동맥판막협착증은 심장에서 전신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대동맥판막이 좁아지면서 혈류 흐름을 방해하는 질환이다. 호흡곤란과 흉통, 실신 등의 증상을 유발하며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특히 고령 환자는 개흉수술에 대한 부담이 커 보다 안전한 치료법이 요구된다.

타비 시술은 가슴을 열지 않고 허벅지 혈관 등을 통해 인공판막을 삽입하는 최소침습 치료법이다. 고령자나 외과적 수술 위험이 높은 환자들에게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시술 다음 날부터 보행이 가능한 정도로 회복이 빠르고 입원 기간도 5~7일 이내로 짧은 것이 장점이다. 반



면 고난도 시술인 만큼 숙련된 의료진과 체계적인 협진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전북대병원은 환자 평가부터 시술 회복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환자별 맞춤 치료 전략을 수립해 안전성과 치료 성과를 높이고 있다.

특히 전북대병원은 2017년 전북지역 최초로 타비 시술에 성공한 이후 꾸준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지난해 7월 300례를 달성한 데 이어 1년 만에 400례를 돌파하며 지역 최고 수준의 시술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교육청, 교원임용 찾아가는 캠퍼스 설명회 성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예비 교사들의 임용시험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2027학년도 교원임용 찾아가는 캠퍼스 설명회 가 높은 관심 속에 마무리됐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8일 전주교육대학교와 19일 전북대학교에서 개최한 설명회에 재학생과 임용시험 수험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예비 교사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개최 시기를 예년보다 앞당겨 6월에 진행함으로써 수험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시험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학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과 야간 시간대(오후 6시 30분) 운영을 통해 참여 접근성을 높인 점도 수험생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설명회는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방법과 시험 운영 전반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고, 2부에서는 부정행위 방지 대책과 임용시험 관련 주요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특히 전북교육청 행정연구회원들이 폐교된 부안 계화초등학교를 실제 시험장처럼 조성해 제작한 안내 영상은 응시자들이 시험 환경을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해 큰 호평을 받았다.



중등교원 임용시험 설명회에서는 체육 과목 실기평가 구기종목을 공개 추첨 방식으로 선정하는 행사도 진행됐다. 응시 예정자들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투명한 추첨이 이뤄졌으며, 필수 종목인 육상·수영·체조 외에 축구와 배구가 최종 구기종목으로 확정됐다.

이와 함께 현직 교사들의 합격 경험과 학습 노하우를 담은 인터뷰 영상도 상영돼 수험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오상근 기자

남원시, '말:들' 연계 주민 초청행사 '기록마실' 진행

남원시는 지난 19일 남원다움관 기획전시 나의 마을:말:들과 연계한 주민 초청행사 '남원기록마실'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남원다움관(남원시 검림길14)과 남원시 농촌종합지원센터가 공동 기획한 이번 행사는 어르신들의 평범하지만 위대한 일상을 남원의 소중한 자산으로 남기교자 마련, △남원다움관 시설 소개 △특별강연 △전시 설명 및 관람 △주민들이 함께 정을 나누는 어울마당 순으로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날 자리에는 전시에 직접 참여한 3개 마을(대강면 옥진, 주성면 영촌, 수지면 산촌마을) 주민들과 청년 작가, 유관단체 연구진 100여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특히 부안군 우덕마을 박후진 사무장이 마을을 기록하고 공간을 살리다'를 주제로 특별강연에 나서, 소박한 마을 기



록이 어떻게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지 공유하며 큰 공감을 얻었다.

시민기록가들이 박물관을 찾아 구술 채록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남원 지역 청년 여성 작가 3명이 따뜻한 그림으로 담아내어, 끊어지기 쉬운 세대 간의 연결고리를 단단하게 이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